

대학원에서 우주탐사학을 전공하며 연구실 출근과 프로야구단 LG 트윈스 응원단을 겸하고 있는 김 응원단장을 만나 응원단에 매료된 과정과 응원단과 대학원을 병행하며 꿈꾸는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2025-2학기 한의예과 '한의학입문2' 과목에서 수강 인원의 절반 이상인 57명이 F학점을 부여받았다. 한의대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사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주보



약학대학 규제과학과 대학원생), 오연주 (의과대학원생)



제1회 의학계열 융합 심포지엄: Magnolia Health Nexus

지난 6일, '제1회 의학계열 융합 심포지엄: Magnolia Health Nexus'가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학계열의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융합연구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약학 · 간호학 · 동서의학 등 우리학교 의학계열 전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분야의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나누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등록금 2.95% 인상 확정 '학생 성장 · AI' 플랫폼에 투자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nu.ac.kr

우리학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2.95%로 확정됐다. 기획조정처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 진로 설계 시스템 구축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학 재정 운영 설명회에서 기획조정처는 향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위원회의 반대 속에서도 올해 등록금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조정처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우수 교원 유출과 시설 노후화를 꼽았다. 예산팀 김영진 팀장은 "해외 대학에 비해 교원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교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설 노후화 역시 주요 인상 사유로 언급됐다. 예산팀은 "건물 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내부의 노후 설비와 안전 문제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비해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시설 개선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팀은 "개보수를 위한 자재비, 인건비 등 지출은 오르는데 수 년 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수입이 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작년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 약 100~110억 원을 ▲교육시설투자(45~50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35~40억 원) ▲

연구비(20억 원)에 투입한 바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이후 교비 사용 계획을 문자, 김 팀장은 "DX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졸업 이후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외부 기회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록, 클로드, 제미나이, ChatGPT,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희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설 개선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기획조정처는 문과대학과 미술대학의 노후 시설 정비를 비롯해 청운관 책걸상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대 외벽 타일 공사와 외국어대 회장실 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캠 비상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등록금 정책은 인상 여부를 떠나 판단 기준과 중·장기적 재정 계획, 그리고 학생 사회에 미칠 영향이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본부의 등록금 인상을 산출 근거로는 "법정상한선 내에서 최대한 인상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대학 재정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지금은 마른 토양을 다시 적셔야 할 시기이며,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상으로 우리학교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약 1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특별 장학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팀장은 "아직 학생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장학금 대응 특별장학에 대한 논의는 학생회 구성 이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전공 수강신청 로그인 오류

김가빈 기자 woo289504@knu.ac.kr

지난 6일 다전공 수강신청 과정에서 본전공생이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다. 서울캠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비상 대책위원장은 "당일 오전 10시 50분경 시스템 오류 발견 즉시, 내부 상임집행위원들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학사지원팀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동 조사에 참여하는 등 모든 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학생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사지원팀 측에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다전공 수강신청 기간 중 접수된 본전공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삭제하는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과목 삭제에 따라 발생한 여석에 대해선 오는 12일 다전공생을 대상으로 추가 수강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오류로 삭제 조치된 수강신청 건수는 약 600건에 달한다. 학사지원팀 태윤희 팀장은 "학년별 제어 조건과 다전공 수간신청 제어 조건 간의 충돌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사지원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강신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태 팀장은 "정보처와 협의해 중간 단계에서 제어 조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며 "다전공 의무화 등 학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 테스트와 제어 조건 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가 수강신청 일정이 당초 11일에서 12일로 변경된 데는 10~11일 외국인 학생 및 교환학생 수강신청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